

# 전설의 '포니 쿠페' 돌아온다... 현대차, 주지아로와 복원

현대차, 조르제토 주지아로 초청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프로젝트  
정주영 선대회장의 도전정신 기려  
완성작, 내년 봄 최초 공개 예정

“단순하지만 모든 균형을 갖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역사의 시작인 현대자동차의 포니 쿠페가 돌아온다.

현대자동차는 이탈리아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협력해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니 쿠페는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바꾼 모델이기도 하다.

1973년 포니 쿠페의 탄생을 이끌었던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를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는데 포니 쿠페를 설계할 당시 단순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단순하지만 모든부분에서 균형있게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21일 방한한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이너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1974년 포니가 양산됐



조르제토 주지아로(왼쪽부터), 현대차그룹 CCO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부사장이 24일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복캠 퍼스 비전홀에서 진행된 디자인 토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던 울산 공장을 돌아보는 등 현대차와의 협업을 시작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인 'GFG 스타일'의 설립자 겸 대표다. 포니와 포니 쿠페 디자인을 시작으로 포니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쏘나타 1, 2세대 등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한 인물이다.

1999년에는 자동차 산업에 끼친 지대

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전세계 자동차 저널리스트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에 선정됐다. 2002년에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현대차는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복캠 퍼스 비전홀에서 주지아로와 현대차그룹 CCO(Chief Creative Officer)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현대디자인센터장 이상엽 부사장 등이 참석해

디자인 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헤리티지를 대중들과 공유해,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GFG 스타일과 공동으로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하기로 하고, 내년 봄 최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독자생산 모델인 포니와

함께 선보인 포니 쿠페 콘셉트는 썬더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 종이 접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으로 전세계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포니 쿠페 콘셉트는 비록 양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실됐지만,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차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특히 올해 7월 처음 공개돼 전세계 미디어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Rolling Lab) 'N 비전 74'는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현대차는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포니 개발을 통해 자동차를 국가의 중추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길 원했던 정주영 선대회장의 수출보국 정신과 포니 쿠페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임직원들의 열정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디자인 토크쇼에서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포니와 포니 쿠페 콘셉트를 디자인했던 과정과 소회, 그리고 개인적 의미 등을 설명했다. 또 당시 포니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대차 임직원들이 보여줬던 다양한 일화들도 소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SK(주), 배양육·대체육 등 지속가능식품 투자 속도낸다

세포배양 연어육 美업체 100억 투자  
사업 다각화로 ESG 경쟁력 강화나사

SK(주)가 차세대 식품 시장으로 주목받는 지속가능식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ESG(환경·사회적 책임·기업 지배 구조 개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SK는 세포배양 연어육 상업화를 추진 중인 미국 와일드타입(Wildtype)에 약 100억원 투자와 함께, 대체 유(乳) 단백질 생산기업 미국 퍼펙트데이(Perfect Day) 및 매일유업과 지속가능식품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SK가 투자한 네덜란드 지속가능식품 기업 미트리스팜(Meatless Farm)도 최근 아주IB투자로부터 10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와일드타입 연어 제품 /SK

와일드타입 투자를 통해 SK(주)는 기존 식물성 고기(미트리스팜), 미생물 발효 단백질(퍼펙트데이, 네이처스 파인드)에 이어 세포배양 식품(와일드타입)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2016년 설립된 와일드타입은 세포배양 기술로 실제 연어와 유사한 식감·맛

·형태 등을 구현하는데 성공해 내년을 목표로 연어 스테이크, 필렛 등 상업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와일드타입은 아직 상업화 생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제품력으로 포케웍스(Pokeworks) 등 미국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2020년 SK(주)는 미국 퍼펙트데이에 투자하며 지속가능식품 사업에 진출한 후 2021년에는 미국 미생물 발효 단백질 개발기업 네이처스 파인드(Nature's Fynd)와 네덜란드 미트리스팜에 투자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다.

SK(주)는 향후 미국 퍼펙트데이-매일유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체 유단백질 기반 제품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SK(주)의 전략적 투자 역량에 매일유업의 제품화·유통·판매 전문성, 퍼펙트데이의 대체 유단백질 개발·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관련 인허가를 획득한 후 퍼펙트데이가 생산하는 원료를 한국에 들여와 매일유업이 완제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을 맡는 형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SK(주)가 약 1200억원을 투자한 퍼펙트데이는 세계 최초로 단백질 생산 유전자에 미생물을 결합, 발효를 통해 단백질 생산에 성공한 기업으로 네슬레(Nestle) 등 다양한 식품 업체들에 아이스크림, 초콜릿, 크림치즈, 스무디 등 원료가 되는 우유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한화큐셀, EU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 프로젝트' 참여

유럽-한국 투트랙 연구개발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혁신 선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태양광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한화큐셀은 유럽연합(EU)이 1500만 유로(약 200억원)를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프

젝트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셀(이하 탠덤 셀)' 시험 생산 라인을 독일 탈하임에 있는 한화큐셀 글로벌 R&D센터에 구축해 연구 개발에 활용한다.

탠덤 셀은 실리콘 층 위에 태양광 신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얹어 제작한다. 탠덤 셀은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

리콘 단일 셀이 흡수할 수 없는 영역의 빛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어 잠재 발전 효율이 높다. 학계가 추정하는 탠덤 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로, 실리콘 단일 셀의 이론 한계 효율인 29%의 약 1.5배에 달한다.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효율 탠덤 셀을 양산하고 탠덤 셀 기반 모듈을 제조하는 장비·공정·재료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화큐셀

고유의 퀀텀(Q.ANTUM) 셀 제작 기술을 적용한 하부 셀을 사용한 탠덤 셀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탠덤 셀을 모듈로 제작할 때의 효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 컨소시엄에는 한화큐셀을 포함해 유럽 내 태양광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총 17곳이 참여한다.

이규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유럽과 한국을 거점으로 투트랙(2 track)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태양광 시장의 기술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램리서치

## 패키징 장비업체 SEMSYSCO 인수

램리서치가 패키징 역량을 높일 합병을 단행했다.

램리서치는 오스트리아 SEMSYSCO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SEMSYSCO는 습식 공정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다. 첨단 로직칩과 칩렛 기반 패키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최첨단 R&D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이를 통해 패키징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이종 집적을 위한 세정 및 도금 설비를 새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큰 사각형 기관에서 혁신적인 팬아웃 패넬 패키징을 지원할 수 있어 수율을 크게 높이고, 버려지는 실리콘 영역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램리서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팀 아처는 “램리서치는 전략적인 셈시스코 인수를 통해 첨단 기관 및 패키징 공정에 한층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칩 제조사들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램리서치는 혁신적 제품과 패키징 분야의 첨단 연구 및 개발 역량으로 고객사가 미래의 칩렛 기반 기술로 확장을 시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juk@

Lam RESEARCH